

이나시오 영성이란 무엇인가

What Is Ignatian Spirituality?

데이비드 플레밍 SJ 지음
민윤혜경 옮김 | 김용수 SJ 감수

?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WHAT IS IGNATIAN SPIRITUALITY?

Copyright © 2008 David L. Fleming, SJ.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Loyola Press
3441, North Ashland Avenue, Chicago, IL 60657, U.S.A.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8 by Press of the Institute for Ignatian Spirituality
through Inter-Ko Literary & IP Agency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Inter-Ko Literary & IP Agency를 통하여
Loyola Press와 독점 계약한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에 있습니다.

목차

서문	7
감사의 글	11
삶과 일과 사랑에 대한 비전	12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18
마음의 영성	24
성찰하는 영성	30
죄는 감사의 결여	36
영성 생활은 순례다	42
부르시는 하느님, 응답하는 우리	47
하느님이 소통하시는 다양한 방법	53
기도는 대화다	58

상상력을 사용하여 기도하라	64
가난하신 예수님을 앎	69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함	74
가치관을 명확히 세우는 방법	79
하느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징표	85
연민의 은총을 구함	90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길	96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기	102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107
사랑이 전부인 예수님의 마음	112
이냐시오 영성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하여	118

서문

예수회원들이나 이냐시오 영성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냐시오적’이라는 고유의 특색을 짓게 하는 태도, 관습, 가치의 총체적 모음을 일컫는다. 예수회를 설립한 이냐시오 로올라가 수도회의 근간이 되는 문헌을 작성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었다. 그는 규칙을 세우는 것보다는 전인격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었다. 예수회원들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생각과 기도 및 행동의 특정한 방식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 작은 책에서 나도 이냐시오와 비슷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냐시오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 영성을 특유하게 만드는 생각과 태도를 기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답해 보려는 것이다. 이냐시오 영성은 규칙을 지키거나 일련의 수련을 한다거나 특정한 기도 방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신심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이냐시오 영성은 영적 “행동 양식”으로서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생활에 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하고, 관상 기도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지니고, 일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영성의 특색을 포착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여러 편의 짧은 에세이로 구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이냐시오 영성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냐시오 영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모든 주제들에 대한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다만 이 책에서 이냐시오 영성의 정신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려 한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이냐시오 영성에 관하여 강연을 하고 글을 썼으며, 이냐시오 영성에 따른 피정 지도와 영적 동반을 하며 다른 이들을 양성해 왔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것은 이냐시오 영성의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냐시오의 『자서전』에 기술된 그의 생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그의 대표작인 영신수련에 따른 피정 경험에서 발견되는 역동성을 길어 올리는 것이다. 나는 이냐시오 로올라의 삶을 자주 언급하고, 그의 책을 종종 인용할 텐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오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혁신적인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냐시오 영성에 끌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쓴다. 그들 중에는 호기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무엇이 ‘이냐시오적’ 특성을 지닌 사목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냐시오 영성

을 조금 알기는 하지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냐시오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이냐시오 영성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이냐시오 로올라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과 사랑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한다고 믿었다. 이 책이 하느님의 그 초대에 더욱 관대하게 응답하는 길로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저자라면 누구나 책 한 권이 출판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과 손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다. 로울라프레스의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이 책이 완성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짐 매니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나를 부드럽게 다그쳐 주었으며, 정성껏 편집해 준 그에게 큰 신세를 지었다. 이냐시오의 사상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또 그것을 글로 써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준 조 듀레포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삶과 일과 사랑에 대한 비전

영신수련에서 이냐시오 로올라가 제시하는 비전vision은 서로 상호적 관계에 있는 세 개의 수련, 즉 「원리와 기초」, 「왕의 부르심」,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에 담겨 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비전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눈으로 보아야 믿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냐시오 로올라는 이와 반대로 “믿어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vision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세상은 절망적인 곳이고, 악과 탐욕 그리고 하느님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득실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선(善)과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냐시오는 올바른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냐시오 영성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준다. 그것

은 바로 삶과 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비전이다. 이 비전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도와준다.

이냐시오의 이 비전은 영신수련에 담겨 있는데, 이냐시오 로올라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이냐시오 영성은 이 영신수련에서 흘러나온다. 이냐시오 비전의 정수는 영신수련 첫머리에 「원리와 기초」라고 불리는 성찰에 담겨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어 당신 생명을 우리와 영원히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생명의 하느님께 찬미와 영예와 봉사를 드림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한다.

이 세상 만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모든 선물을 존중하며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느님과 협력하여 착한 청지기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세상과 그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창조의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책임이 달리 없다면 우리는 매

일의 생활에서 창조된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균형을 지켜야 한다. 우리 소망이 건강이나 질병, 부유함이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장수나 단명 그 어느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매이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 큰 사랑의 응답을 하도록 우리를 일깨울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선택은 이것이라야 한다. 하느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날로 더욱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을 더욱더 인도하는 것을 바라고 선택한다.

이나시오가 말하는 첫째 원리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만물도 …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인 셈이다.” 즉, 하느님이 피조물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생활 안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에게 무심한 분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에 관여하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원리와 기초」는 삶에 대한 비전이다. 「원리와 기초」는 “삶이란 결국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비전이 바로 삶의 원천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삶에 대한 비전이 이 책에서 계속 언급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 이나시오적 전망의 참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나시오 영성은 또한 일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어떠한 가치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는가?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의 「왕의 부르심」을 관상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복종하는 왕의 예를 들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다. 예수님을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나는 온갖 질병과 가난과 문맹과 억압과 노예 제도 즉, 인류를 억압하는 모든 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도전하신다. “나와 함께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나와 같은 수준으로 취하는 데에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일에 대한 비전에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시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고, 그분처럼 생각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라는 부

르십이다. 그리스도는 왕자, 백작, 공작, 영주, 기사로 구성된 위계를 통해 멀리서 자신의 군대에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분은 “최전선”에 계신다.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당신 일에 참여하기 원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초대하신다.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기에 당신과 함께 일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나시오 비전의 세 번째 부분은 사랑에 대한 비전이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당신께 되돌려 드리도록 초대하신다. 나중에 우리는 영신수련을 마무리하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이나시오가 이 관상을 소개하기 전에 전제로 제시한 두 문장을 살펴보자.

첫째는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이란 나누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을 하면 가진 것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진다.” 여기에서 이나시오가 사용한 스페인어는 코무니카르 *comunicar* 인데, 이는 “나누다” 또는 “통교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이 나눔은 통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느님은 그저 선물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연인이시

다. 하느님은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기 자신마저 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그분은 또한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도 우리와 나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다.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 하느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일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난다.

이나시오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우리는 하느님, 우리 자신, 다른 이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나시오는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한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는 데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분이시다.